

# 광주 서구 무진대로 '암흑길'...교통사고 등 위험 노출

### 유택IC 인근 약 400m 구간 가로등 10여개 5개월째 꺼져 주행 시야·차선 확보 등 애로...운전자들 "복구 시급"

"늦은 시간엔 도로가 깜깜해서 차선 구분이 어려워요. 얼마 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일명 '스텔스' 차량이 불쑥 나타나 하마터면 추돌할 뻔 했습니다. 5개월이 넘도록 이런 상황인데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빠른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주시청에서 유택IC 방향 약 400m 구간의 왕복 10차선 도로인 이곳의 일부 가로등이 꺼져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만 합류 구간부터 10여개의 가로등이 연달아 소등돼 야간에는 그야말로 '암흑길'이다.

더욱이 차선 일부가 지워져 차량 간 충돌 위험도 있는 데다, 자칫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

을 경우에는 대형 교통사고까지 우려돼 도로 안전시설 점검 및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출·퇴근 시 이곳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운전자 김모(38)씨는 "오전에는 큰 불편을 못 느끼지만 밤에는 도로 주변이 어두운데다, 차선까지 구분이 안 돼 옆 차량과 충돌할 뻔한 적도 있다"면서 "하루빨리 꺼진 가로등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30대)씨는 "늦은 시간에 이곳을 지나다 보면 스텔스 차량을 볼 수 있는데, 가로등이 꺼진 곳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렇게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가로등은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유택동 광주시청에서 유택IC 방향으로 향하는 무진대로 내 가로등 10여개가 연달아 꺼져 있다. (왼내) /주성학 기자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할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유지 관

리를 준칙하고 있다. 그중 조명시설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로 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조명 효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점등 상태의 점검 ▲광원의 교환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 ▲청소 등을 유의하며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안전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관할 당국은 인력적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지만, 가로등 점검은 상·하반기와 명절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니며 육안으로 살피고 있다"며 "관계 시스템을 통해 오류나 파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확인 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지만, 합선 등 복잡한 문제의 경우 용역 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1주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성학 기자

## 환경법령 위반 통합허가사업장 무더기 '철퇴'

### 영산강유역환경청, 정기검사서 21개소 33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올해 1~8월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합허가사업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큰 업종의 사업장 중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를 통합해 받은 사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리 대상은 114개소로, 정기검사는 사업장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에 대해 1~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검사 방식은 청내 관련 부서와 한국환경공단 등 오염도 측정 전문기관과 사후관리 원팀(통합관리단)을 구성해 3~5일에 걸쳐 이동식측정차량, 광학가스탐지(OGI)카메라, 총탄화수소분석기, 드론 등 첨단장비가 활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 및 회

손 방지, 자가측정 미해행 등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곳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과 사업장이 협업을 통해 통합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조선대병원 파업 종료...임단협 타결

조선대병원 노조가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옛세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3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사후 조정에서 사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노조가 조합원 의견을 거쳐 수용하기로 했다.

조정안에는 25% 임금 인상률을 9월부터 적용하고, 직급 보조비·가족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 지급 등의 내용이 담

겼다. 사측과 이견을 조율한 만큼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왔던 파업을 이날 오후 6시 종료했다.

조합원 1천200여명 중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제외한 파업 참여 조합원 300여명(병원 측 집계)은 4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주수희 기자

## '신군부 실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피고발

전두환이 집권했을 당시 핵심 실세로 통했던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정부 자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충립 목사로부터 최근 허 이사장을 횡령·명의도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지냈던 인물로 고발장에는 허 이사장이 정부 출연기관인 미래한국재단을 개인 사업체로 둔갑시키는 등 명의를 도용했고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 목사는 지난해 미래한국재단의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허 이사

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미래한국재단은 김 목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 "땅 담보 대출로 빚 갚을게" 2억대 편취범 실행

###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로부터 2억원 넘게 편취한 50대가 실행을 살게 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총 2억1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접근한 A씨는 타인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등 재차 기망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크고 B씨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A씨가 도망한 점에 비취 보면 실행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승합차, 오토바이 추돌...2명 사상

순천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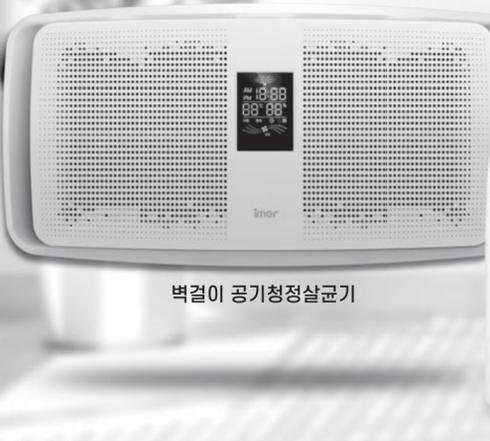
3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4분께 순천시 서면 한 도로에서 A(54)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70대 운전자 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정기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